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013년 정기총회

창립 8주년 기념 초청강연 초청 강사: 이 광 재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 저자]

초청강연

2013년 2월 15일(금) 오후 4시, 본원 교육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제25호
2013년 4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노영윤 이선희 임소희 / 발행일 2013년 4월 25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장재성 이사장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을 맡은 장재성입니다.

8년 동안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주신 이미영 선생님께서 삶의 전부가 다름없던 이사장직을 물러나셨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용퇴를 결심하셨고,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부족한 제가 대임을 맡았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저는 든든합니다. 우선 여러 이사님들과 감사님들, 그리고 자문위원님과 고문들께서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우식 원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실무를 척척 맡아 처리해 주시니 든든하고, 무엇보다 늘 가슴으로 교육문제를 고민해주시는 여러 회원들이 계시니 더욱 든든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실무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부하고 고민도 했지만 철학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곤 했고, 그때마다 함께 연구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우면서 일하고자 합니다. 무슨 일부터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많이 듣고자 합니다.

철학이 부족한 시대, 최대의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쓰는 아이, 가끔 학교를 늦게 옴으로서 표현하는 아이, 게임에만 온 정신을 파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돈을 벌고, 밀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기 싫습니다. 학교도 그리 재미있어 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또 행복한가요? 출근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퇴근 시간이 됩니다. 학년 초라서 아이들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콩나물교실과 터무니없는 제도도 선생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무슨 신청서라고 해서 걷는 것은 왜 그리 많은지...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 속에 점점 지쳐갑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찌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사업도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각종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회원들 건강을 위한 행사도 준비합니다. 더불어 통일한마당 행사와 복讎 어린이 쿡우유 보내기 사업도 꾸준히 펼치면서,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와 교육계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하려 합니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문화원 회원 모두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겨울의 나무를 말했습니다. 그 거무태태한 모습에서 어쩌면 봄에 그리 아름다운 꽃과 이파리들을 만들어내는지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기다리듯이, 꽃을 기다리듯이, 신록을 기다리듯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신록을 뿜내며 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4월

심는순서

- | | |
|------------------------------------|-----------------------|
| 02 인사말 / 장재성 이사장 | 08 교육시론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
| 03 2013 정기총회 / 2013 창립 8주년 기념 초청강연 | 10 교단일기(최정원, 조해양) |
| 04 2013년 임원, 집행부 소개 | 12 신입회원 / 회원동정 |
| 06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3월) | 13 인사동정 |
| 원주 화암사 입구 싱그랭이 마을과 신흥계곡 | 14 느리게 걷는 지리산 둘레길 |
| 07 2013년 사업계획 / 주요 사업 일정 | 15 회원, 후원회원 가입 신청 |

2013 정기총회



2013년 정기총회 대회사 - 정우식 원장



장재성 이사장 취임 - 류정아 회원 꽃다발 증정



으뜸회원상 양경자 선생님 부부와 정우식 원장

장재성 이사장 취임

박승배 교수 자문위원 위촉

2013년 정기총회가 2월 15일 오후 4시부터 본원 교육실에서 열렸다.

임동연 신임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정우식 원장의 대회를 시작으로 2012년 활동/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획/예산 보고를 했다. 뒤이어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 공로패 수여, 으뜸회원상 시상 등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창립부터 8년간 단체를 이끌어온 **이미영** 이사장이 이임하고, 그동안 이사를 맡아 일해 온 **장재성** 선생님이 새로이 이사장에 취임했다. 또 **박승배** 교수님(전주교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미영 이사장 이임 - 공로패 증정

으뜸회원상 양경자 선생님

직무를 마친 **이미영** 이사장에게는 어려운 시기부터 이사장을 맡아 헌신하면서, 우리 문화원을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 대안 단체로 우뚝 세운 공로를 기려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한 회원에게 주는 으뜸회원상은, 농촌교육과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에 힘쓰고, 우리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양경자**(순창중) 회원에게 돌아갔다. 멀리 순창에 거주하면서도 문화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 열정 때문에 일찌감치 내정되었다는 후문...*



이미영 이사장 이임 -공로패 증정

2013 창립 8주년 기념 초청강연



정기총회에 이어 오후 5시에는 창립 8주년 기념 초청강연이 있었다.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의 저자인 **이광재** 작가가 “다시 동학 정신으로, 녹두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호남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임진왜란과 구한말의 의병 활동, 동학, 광주학생운동, 항일독립투쟁,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불의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역사의 핵심적인 장면마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호남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나라를

근대사회로 이끈 커다란 원동력이 된 동학혁명의 의의를 되새기며, 암흑의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전봉준이 되어 교실을, 가정을, 거리를, 사회를, 이 나라를 바꾸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함을 역설하였다.

2013년 임원 및 집행부 소개

• 임원진

직책	이름	소속	직책	이름	소속	직책	이름	소속
고문	김 윤 수	전주술내고 교사	이사	박 기 업	전북기계공고	자문 위원	김 영 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 일 범	순창제일고 교장		서 진 용	정읍입암중		김 영 춘	전주술내고 교사
	송 병 주	(사)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송 승 용	김제동초		박 세 훈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이 광 철	전 국회의원		신 성 하	전주서신초		박 승 배	전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최 규 영	전 진안문화원장		이 미 영	전주공고		안 도 현	시인,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사장	장 재 성	전주서중		정 용 문	무주중	감사	황 만 길	전 (사)지역농업연구원 원장
이사	강 유 희	전북제일고		정 우 식	이일여고		남 상 팔	전주공고 교사
	김 명 희	부안중		정 은 숙	전주만수초		조 경 희	퇴직 교사
	노 장 환	부안교육지원청		최 병 흔	전북체육중			
	문 채 병	고창교육지원청		한 은 수	원광고 교장			

(이상 가나다 순)

• 고문



김 윤 수



박 일 범



송 병 주



이 광 철



최 규 영

• 감사



남 상 팔



조 경 희

• 이사장



장 재 성



노 장 환



송 승 용



정 우 식



문 채 병



신 성 하



정 은 숙

• 이사



강 유 희



박 기 업



이 미 영



최 병 흔



김 명 희



서 진 용



정 용 문



한 은 수

• 자문위원



김 영 기



김 영 춘



박 세 훈



박 승 배



안 도 현



황 만 길

• 집행부



원장 정우식
(이일여고 교사)



부원장 송승용
(김제동초 교사)



부원장 김현봉
(전주용소중 교사)



부설연구소장 최선호
(완주신일중 교사)



사무처장 임동연
(기아자동차)



정책기획실장 이상훈
(전주고 교사)



통일교육실장 류정아
(완주비봉초 교사)



독서교육실장 최봉석
(전주제일고 교사)



편집국장 노영운
(김제초처초 교사)



연대사업국장 신성하
(전주서신초 교사)



문화예술국장 윤영집
(익산금마초 교사)



교육연수국장 손춘임
(남원여고 교사)



통일교육국장 최상렬
(전주서신초 교사)



청소년독서교육국장 황희경
(전주오송중 교사)



어린이독서교육국장 전지민
(전주서신초 교사)



청소년문화국장 유인선
(진안동향중 교사)



어린이문화국장 김진만
(전주인후초 교사)



교육연수부장 진상덕
(순창동산초 교사)



정보통신국장 구자상
(이리공고 교사)



총무국장 이선화
(사무실 상근)



간사 엄소희
(사무실 상근)



변산바람꽃

완주 화암사 입구 싱그랭이 마을과 신흥계곡 - 3월 2일

장재성 이사장

3월 2일이면 야외에서 걷기는 조금 춥기도 하고 더구나 꽃을 본다는 것은 어려우려니 여겼다. 그런데 ‘시민행동21’ 소속 소모임 ‘꽃다지’가 이른 봄꽃을 보기로 했으니 함께 하자는 임동연 신임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우리 문화원 행사와 꽃다지 행사를 함께 잡았다.

고산 가는 길목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만나 승용차 여덟 대에 나누어 타고 완주군 경천을 지나 화암사 입구의 싱그랭이 마을에 도착하였다. 마을길이라서 좁은데 많은 차가 한꺼번에 들어오니 마을이 번잡해졌다.

완주군에서 이 마을을 지역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마을 주변의 야생화를 보전하고 주민들이 안내를 맡아 마을 소득도 추구하고 주민 참여도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안내를 맡아 우리와 함께 차를 타고 조금 가서 복수초를 보았다. 눈 속에서 올라온다는 복수초는 노란 꽃망울이 아직 작았지만 여기 저기 봄이 오고 있음을 증명하듯 앙증맞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만 그곳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서 보기가 매우 어려웠고 어떤 분은 옷웃이 찢어지기도 했다. 거기에서 복수초가 잘 안보여서 초보자들은 꽃을 밟아버릴 우려가 있고, 그런 이유로 한발 한발을 떼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런 꽃들이 마을의 보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내려왔다.

이어 차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하여 [너도바람꽃]을 보았다. 작아서 보통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꽃들을 찾아내고 볼 수 있었다. 역시 밟힐 염려 때문에 조심조심하며 꽃을 보고 사진을 찍고 다시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준비한 점심을 먹었는데 소박한 준비였지만 조금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어떤 분은 자꾸 담근 술을 권해서 고맙긴 하지만 운전자들은 사양하기 바빴다.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과 야생화가 한 묶음이 되어 마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삼례읍 박병운 계장님의 열성적인 안내와 길잡이 모습을 보며 그런 기대가 가능할 것 같았다.

점심 이후 일부는 집으로 향했지만 일부는 다시 차를 나누어 타고 [변산바람꽃]을 보았다. 너도바람꽃과 비슷한데 잘 보면 분명 달랐다. 조금 더 크고 건강하고 다부진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꽃도 좋지만 이곳의 이름난 사찰 화암사를 가기로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고즈넉한 모습의 화암사 누각은 손님들을 쪽문으로 맞이했다. 작은 석성을 연상시키는 절 안으로 들어가면 백제계 누각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17세기 법당이 반겨준다. 토요일이라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았다. 이 절이 이토록 항상 사랑받는 이유는 변함없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3월 걷기는 특별하였다. 우리 문화원과 꽃다지가 함께 행사를 가졌고, 한편으로 우리 문화원 신임 회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주로 교사인 우리 문화원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이는 효과도 있었던 행사였다. 일 년에 두 번 쯤은 이런 유형의 행사를 가지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2013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업계획

2013 문화원 주요 사업 일정

1. 회원 교육 및 소모임 활성화

- 1) 소모임 활성화
 - 다양한 요구(자기 개발,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전문성 향상 등)에 맞는 모임 구성 운영 및 지원
- 2) 회원 교육 및 연수 활동
 - 회원들의 교양과 사회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
 -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모임과 연수 활성화
- 3)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의 내실 있는 운영

2.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1) 청소년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 2) 청소년 활동 지원
- 3) 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주5일 대한 마련

3.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의 일상화

- 1)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개최
- 2) 북녘 어린이 쿵우유 보내기 사업 지속 전개
- 3) 학교 통일교육 지원

4. 회원 참여와 소통

- 1) 회원 참여와 단합을 위한 행사 개발
- 2) 회원 소통 강화
- 3) 예비교사와의 연결 토대 구축

월	월별 사업 내용
1	• 2013 집행부 정비 및 사업계획확정 • 역사 · 문화 걷기 • 2012 재정결산/내부감사
2	• 이사회 • 정기총회/초청강연 • 역사 · 문화 걷기
3	• 역사 · 문화 걷기 • 직무연수 기관 지정 신청
4	• 통일한마당 준비위원회 구성 • 역사 · 문화 걷기 : 느리게 걷는 지리산 둘레길 (4.27) • 소식지 25호 발간
5	• 제5회 체육한마당 및 배드민턴 대회 (5.11) • 역사 · 문화 걷기 • 교육좌담회 : 청소년 자살
6	• 제 13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6.1) • 역사 · 문화 걷기 • 교육정책 토론회(6.29) • 소식지 26호 발간
7	• 상반기 평가 워크숍 • 역사 · 문화 걷기
8	• 회원/활동가 연수 • 역사 · 문화 걷기
9	• 역사 · 문화 걷기 • 소식지 27호 발간
10	• 교육이야기마당 • 역사 · 문화 걷기
11	• 역사 · 문화 걷기 • 문화원의 밤 • 제9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
12	• 역사 · 문화 걷기 • 회원/활동가 연수 • 소식지 28호 발간
연중	• 운영위/집행부서장 회의 • 각 팀별 모임/교사소모임별 모임 • 연구소 교육정책연구 모임

너도 바람꽃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정 우 식 원장



‘다름’ 과 ‘틀림’

우리는 흔히 다르다고 표현해야 할 때,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달라.”(○)

“나는 너하고 생각이 틀려.”(×)

“피부색이 다르다.”(○)

“피부색이 틀리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다르다’는 ‘같다’와 짝을 이루는 말로, ‘같지 않다.’는 의미이고, ‘틀리다’는 ‘맞다’, ‘올바르다’ 정도와 상대적인 말로, ‘맞지 않다.’, 또는 ‘옳지 않다.’는 의미이다.

- 다르다: (두 비교 대상이)서로 같지 않다. 한자로는 이(異)나 별(別)에 해당

- 틀리다: 맞지 않다. 옳바르지 못하다. 그르게 되다. 잘못되다. 한자로는 오(誤)나 류(謬)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일 뿐,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심코 말할 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잘못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잘 알다시피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아 왔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착오가 단지 언어 습성에 국한되는 문제라면, 그다지 문제될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상적이고 고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의식 저변에 자리하며, 삶을 왜곡하고 온갖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교육

어린 시절부터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존중에 이르도록 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교육이 담당해야 할 커다란 책무이다. 일어나는 행위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편협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단정하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수단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문화 이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양성평등, 평화와 인권, 통일교육 등 우리 교육의 핵심과제들이 이와 맞물려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인권도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의 태도가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도 억지로 한 데 합치려고 하거나 굴복시키기보다는 상호 인정과 공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찾아질 수 있다.

프로그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인식전환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쉽게도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자기 경험에서 축적된 제한적 판단만으로 아이들을 재단하거나,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아이들을 뜯어고쳐 놓고야 말겠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삶을 옹졸하는 일이 더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

자연에서도 다름과 다양성이 모든 생명 있는 것에 관통하는 기본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물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 건강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생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항상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낯고 고정된 하나의 잣대만을 들이대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각은 특히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마찰과 갈등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역사적으로도 거의 모든 사회 갈등과 전쟁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른 남을 옳지 못한 것으로 규정해서 내 것으로 흡수하고 굴복시키려 한 데서 나옴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른 것을 못 견뎌하는 시각은 근본주의, 절대주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종교든, 민족이든, 사상이나 이념이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이든 간에 모든 차별은 이런 태도를 내포한다.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나 전쟁들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나만 옳다고 전제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마찰을 부른다.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로 합치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마찰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존과 사회 통합은 지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론통일’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 가능하지도 않고 위험할 따름이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고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살색’을 ‘살구색’으로 고쳐 부르는 태도는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본디 살색이라는 명명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네 피부 빛깔을 있는 그대로 담은 구체적인 언어이므로 이상할 것 없다. 하지만 시대와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그러한 표현조차 자민족이나 자문화 중심의 절대주의적, 일원론적 세계관을 담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도 어떤 시대에는 민족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사회의 누군가에게 인종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시각조차 ‘다름’의 차원에서 용인될 수는 없어

앞서 강조한 이런 다름의 인정이, 인종차별과 노동착취, 민주 가치를 짓밟는 독재 권력의 횡포, 나치나 일제의 침략, 배타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나 주장조차 ‘견해의 다름’ 차원에서 바라보고 용인하자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책과 함께 신나는 1학년

최정 원 (전주서신초 교사)

학년 발표가 났다.

“최선생님은 올 해도 1학년 수고해주세요.”

‘이럴 수가~ 올 해도 1학년이라니! 내리 3년을 1학년을 하다니!’

연속 2년을 1학년 담임을 했기 때문에 올 해는 학년이 올라가나 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1학년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1학년이 되었다. 아~ 그렇다고 내가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 교사는 아니다. 그저 우리 학교에서 경력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현실에 순응하고, 학기 준비를 시작했다.

1학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식이다. 올 해도 작년처럼 입학식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연구부장 선생님하고 사서 선생님이 올 해는 뭔가 다른 입학식이란단.

“책과 함께하는 입학식이에요.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도 선물로 주고, 입학식 때 책도 읽어주고, 책 놀이도 할 거예요.”

“?”

‘입학식을 책과 함께?’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책 선물은 좋은데, 입학식 때 책도 읽어줘요? 입학식 모습이 상상이 안되는데요.”

“시나리오하고, 입학식 순서를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우리 학교가 올 해도 ‘책 읽어주는 학교’니까, 입학식부터 책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취지는 아주 좋다고 공감했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 약간의 거부감(나도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인가)과 걱정이 되었다.

입학식 당일, 입학생 숫자가 적어 올 해는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입학식.

학교장 인사, 담임 소개, 예년과 다름없는 순서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앞에서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라는 책을 읽어주셨다. 순간 시끌시끌했던 아이들의 관심이 책으로 확~ 쏠렸다. 책에 이렇게 집중하더니, 올 해도 책 읽기가 재미있겠구나 생각하니 팔에 소름이 짹~ 돋았다. 이어지는 책 놀이 ‘도깨비 씨름’ 아이들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 선생님들과 짝을 이루고, 처음 만난 친구와 짝을 이루고, 엄마 아빠와 짝을 이뤄서 책 놀이를 진행했다. 진지했던 분위기가 풀어져 재미있고, 신나는 입학식이 되었다. 처음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긴장이 풀리는 것도 느껴졌다.

이어지는 책 꾸러미 선물전달, 아이들은 꾸러미 안에 책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책 꾸러미 안에 들어있던 옛 놀이 도구들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다. 당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집에서 엄마, 아빠랑 책도 읽고 놀이도 해보라고 달래는데 애를 먹었다.

처음 시도하는 책과 함께하는 입학식이라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 즐겁고, 신나는 입학식이 되었다.

아이들도 책 선물을 받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애들아~, 올 해도 책과 함께 즐겁게 놀자꾸나!!



삼천천에서 봄을 만나다

조해양 (전주용흥초 교사)



어제까지 봄을 잔뜩 시샘하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오늘은 더없이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 올해 첫 학급활동의 날이다.

대부분 늦잠에 들어 있거나 텔레비전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토요일 오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한 달에 한번쯤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활동을 하기로 했다. 학급활동을 하기엔 조금은 성급한 시기이지만 희망자가 10명만 넘으면 시도해 보기로 했다. 다행히 희망자는 19명. 우리는 삼천천을 산책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쭉도 캐 보기로 했다.

드디어 3월 23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젯밤에 준비한 김밥재료에 밥을 지어 20여명 분의 김밥을 말았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도 시간은 벌써 오전 9시. 집을 나섰다. 15명의 친구들이 토요 휴업일 늦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학교로 왔다. 옷차림은 가벼웠고 표정 또한 밝았다. 학년초라 조금은 서먹하지만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삼천천 산책로로 향했다. 표지판도 읽고 운동기구도 움직여 보며 천변을 천천히 걷다가 문득 수면을 바라보니 멀리 있는 모악산의 그림자가 여기에 어려 있었다.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산의 그림자가 여기 비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기만 했다. 천변을 수없이 걸어 보았지만 모악산 그림자가 삼천천에 비친 모습은 처음이다. 역시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보면 비로소 보이어나보다.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천천히 걸으며 바닥에 잔뜩 엎드려 핀 작은 풀꽃도 보고 쓰레기도 주우며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신령교 훨씬 너머까지 걸어갔다. 그 즈음에서 산책로를 벗어나 논둑으로 들어가 쭉을 캐다. 쭉은 아직 너무 어려서 캐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쭉 향기가 너무 좋다고 감탄사를 쏟아내는 호석이와 휘인이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쭉을 뜯었다.

쭉을 잠깐 뜯고 점심을 먹으러 학교로 돌아오는 길, 가로에 심어진 벚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나뭇가지에 크기는 작지만 수많은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또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학교로 돌아오니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점심으로 준비한 해양표(?) 김밥과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정리 후 각자 집으로 향했다.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다. 하지만 걸음이 빨라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게 멀리 간 윤주와 예린, 늘 말이 많더니 오늘은 할 말이 없다고 조용하기 그지없는 현승이, 엄마에게 쭉을 캐다 드리고 싶어하는 막내둥이 휘인이와 호석이, 엄마보다 더 동생 걱정을 많이 하는 너무나 속이 깊은 만이 세은이,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민정 이, 아빠 사랑을 많이 받는 희진이, 모르는 행인들에게까지 밝게 인사를 건네는 예림이와 윤하, 그리고 묵묵히 따라오는 재훈, 진욱이가 있어 오늘 학급 활동과 화사한 봄날이 더욱 즐겁고 빛나고 아름다웠다.

다음 달엔 모악산을 갈까, 아니면 한옥 마을을 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환영! 신입 회원(가입일 순)

김규훈(전주공고): 이미영 추천
 마경숙(전주공고): 이미영 추천
 장호지(장수교육지원청): 노장환 추천
 정애영(꼬마세상어린이집 원장): 강상호 추천
 함은아(장수산서중): 장재성 추천
 박교원(전북사대부고): 장재성 추천
 정성순(전주영상미디어고): 장재성 추천
 황미숙(전주서중): 장재성 추천
 조은희(전주서중): 장재성 추천
 서정배(전주서중): 장재성 추천
 조두성(군산진포중): 장재성 추천
 고승주(익산고현초): 임동연 추천
 김규남(전북언어문화연구소 소장): 정우식 추천
 김마성(전주서중): 장재성 추천
 유흥길(전주서중): 장재성 추천
 강귀영(전주공고): 이미영 추천
 이수경(전주공고): 이미영 추천
 김소미(전주공고): 이미영 추천
 정호주(전주공고): 이미영 추천
 최정원(전주서신초): 노영윤 추천
 신성민(한별고): 신성하 추천

회원 동정

“회원 동정에 실을 소식, 연락 주세요. ~ 애타게 기다립니다. ..”

▶ 축 수상

백발, 선한 미소, 천연염색 실크 스카프 하면 떠오르는 열성 회원 **박종관** (무주적상중) 선생님께서 JTV 전주방송과 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가 주최하는 ‘제9회 초아의 봉사대상’ 교육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00년 무주안성중 부임 이래, 무주지역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해소, 학생인권과 특수아동 복지 증진, 방과 후 학교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고, 천연염색 체험, 청소년 영화제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오셨습니다.



지난해 5월 무주 천연염색체험에서(앞줄 가운데)

▶ 축 결혼

김수정 회원님(수정커뮤니케이션)께서 2월23일(토) 결혼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유인선 선생님(진안동향중)도 같은 날, 품절녀가 되셨네요.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 축 승진

권인창 장학사님(완주운주초)은 무주교육지원청, **추창훈** 장학사님(전주서곡중)은 완주교육지원청, **최지윤** 교육연구사님(전통문화고)은 전북교육연수원, **이동욱** 교육연구사님(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교육원에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좋은 역할 기대합니다.

교감으로 승진하신 **양해주** 교감선생님(남원산동초)은 남원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셨고, **김민자** 교감선생님(김제봉남초)은 김제비룡초등학교, **김숙현** 교감선생님(완주이서초)은 전주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을석 장학사님(전북교육청)은 교장 승진하셔서 전라중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중등

이 름	신 임	구 임
고유곤 선생님	정읍칠보중	김제청하중
권경자 선생님	전주용소중	원주중
권오인 선생님	부안제일고	정읍제일고
김귀임선생님	전주우림중	임실서고
김병주 선생님	이리공고	전주공고
김재길선생님	익산함열고	전주고
김준수 선생님	전주고	전북과학고
김찬영 선생님	전주우림중	익산부송중
남상팔 선생님	전주공고	이리공고
문상일선생님	전주공고	장수고
박교원 선생님	전북사대부고	군산여고
박기업 선생님	전북기계공고	전주고
박순례 선생님	관촌중	정읍소성중
방미옥 선생님	완주상관중	익산왕궁중
백선희 선생님	장수천천중	원주고산중
백하나 선생님	남양주송리중	남양주화광중
손영호 선생님	진안중	김제자영고
안정임 선생님	전주우아중	전북기계공고
양희전 선생님	전주우림중	군산고
엄정배 선생님	남원여고	전주공고
오재관 선생님	김제중앙중	임실오수중
윤양금 선생님	순창여중	순창중
이동욱 교육연구사님	전북학생교육원	전북교육청
이연희 선생님	전주서곡중	완주봉서중
이지숙 선생님	전북기계공고	전주공고
이형월 선생님	전주생명과학고	전주곤지중
임은정 선생님	전북사대부고	장계공고
임 현 선생님	장수산서고	임실오수고
전민경 선생님	군산상고	전주공고
전성심 선생님	군산여고	전주공고
전을석 교장선생님	전라중	전북교육청
주미희 선생님	전주우림중	전주용소중
최봉석 선생님	전주제일고	전주전라고
최선옥 선생님	김제여고	군산서흥중
최선호 선생님	전주신일중	완주봉서중
최성자 선생님	군산금강중	전주공고
최영주 선생님	전주온고을중	군산산북중
최지윤 교육연구사님	전북교육연수원	한국전통문화고
추창훈 장학사님	완주교육지원청	전주서곡중
함은아 선생님	장수산서중	전주서중

초등

이 름	신 임	구 임
강귀심 선생님	완주봉서초	완주삼우초
권인창 장학사님	무주교육지원청	완주운주초
권효정 선생님	전주만성초	완산초
김미리 선생님	김제초처초	김제만경초
김민자 교감선생님	김제비룡초	김제봉남초
김수연 선생님	전주서일초	전주송원초
김숙현 교감선생님	전주남초	완주이서초
김진만 선생님	익산왕궁남초	전주인후초
라이현 선생님	익산용안초	전주신성초
리혜림 선생님	전주용흥초	완주봉서초
문미영 선생님	전주인후초	전라초
박용섭 선생님	전주문학초	전주서곡초
신소영 선생님	김제검산초	김제초
양해주 교감선생님	남원초	남원산동초
엄정영 장학사님	전북교육연구 정보원	전북교육연구 정보원 학교지원부
윤하용 선생님	전주서천초	전주인봉초
이명화 선생님	김제금구초	김제원평초
정규석 교감선생님	김제벽량초	김제동초
천영숙 선생님	김제월촌초	김제부용초
한일희 선생님	무주구천초	무주설천초

명예퇴직

이 름	소 속
김선명 선생님	장계공고
김순영 선생님	김제여고
최전심 교육장님	군산교육지원청

좋은 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함께 가요~!

느리게 걷는 지리산 둘레길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본래의 참 나를 찾는 진정한 힐링을 위한
「느리게 걷는 지리산 둘레길」힐링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지리산의 품에 안겨 지리산의 속살을 느끼며 걷는 둘레길,
그 길을 느릿느릿 걸으며 비움과 성찰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지킴이 숲샘 최세현님과 함께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고개를 넘어 마을과 마을을 만나는 길,
곧장 오르지 않고 에둘러 가는 길,
들녘을 따라 삶과 노동을 만나는 길,
강을 건너 머리칼 흩날리는 바람을 만나는 길,
숲을 따라 숲 속의 못 생명들을 만나는 길,
끝끝내 자기를 만나 위안을 얻는 치유의 길,
생명파 평화를 가슴에 안고 걷는 순례의 길입니다.

일시 : 2013년 4월 27일(토) 아침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출발장소 : 8시 30분, 도청 남문주차장
회비 : 어른 1인 10,000원(아이들 무료) 가족 참여 대환영 ^^*
접수 : ☎ 905-0218, jib-blue21@hanmail.net (선착순 마감)
길 안내 : 최세현 (지리산둘레길시민모니터링단 단장,
진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숲해설가)
준비물 : 도시락, 간식, 식수, 개인용 깔자리
세부 일정

08:30 전주 출발
10:00 하동 궁항마을 도착
12:30 점심 식사(양이터재)
13:00 양이터재 출발
14:00 본촌마을
14:30 하동호
16:30 하동 출발(19:00 전주 도착)

〈참고사항〉

- 둘레길을 걸으며 '알면서도 모르는 우리 나무 이야기' 도 함께 진행합니다.
- 양이터재는 낙동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를 나누는 분수령이 됩니다.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와 동흥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200구좌(매월 100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회 원 (), 후원회원 ()		
직업 / 직장	담당업무(교과)		
직장전화	집전화		
손전화			
E-mail 주소			
직장주소			
자택주소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월이체액	회비 1만원 + 후원금()만원	CMS 자동이체 여부	예(), 아니오()
계좌번호	(은행명)		

2013년 월 일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각 정보는 수집 ·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 시까지(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까지) 이용 · 보유하게 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 · 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체육한마당 제5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일시 : 2013년 5월 11일(토) 09:00~13:00
장소 : 전라중학교(전주 덕진동 소재) 강당
종목 : 배드민턴 대회 / 친선 배구

제5회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

경기종목 : 배드민턴(완전초급, 초급, 중급 -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구 성 : 남자복식/여자복식 : 2인 1조 신청

혼합복식 : 남복/여복과 중복 신청 가능(단, 팀이 적을 경우 경기 취소함)

* 비회원도 회원 1명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참가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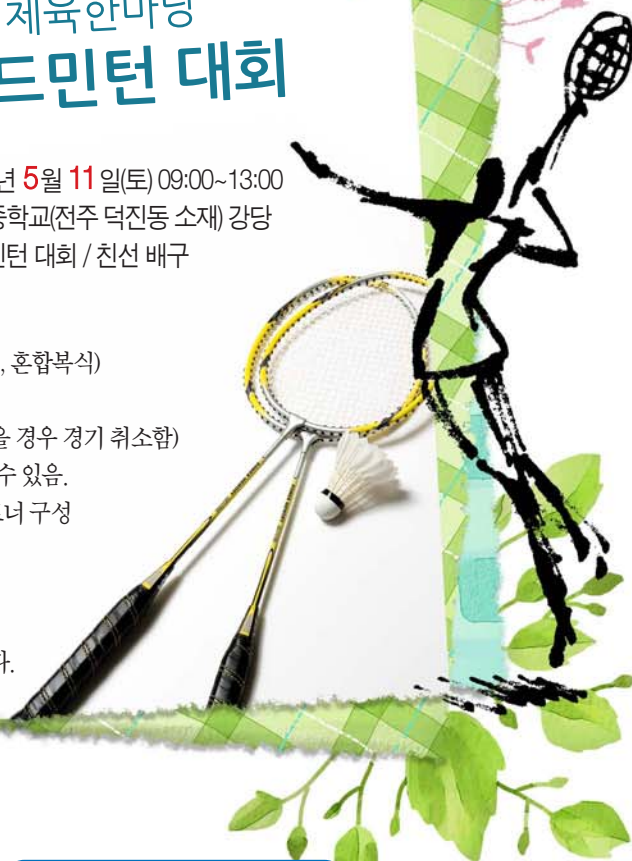
* 파트너가 없을 때에는 개인 참가 - 조직위에서 파트너 구성

회 비 : 참가자 1인당 1만원(당일 접수)

문의/접수 : 905-0218 (Fax 227-0650 / jb-blue21@hanmail.net)

신청서 양식 : <http://blue21.or.kr> 신청서 다운받아 사용

※ 당일 참석하시면 기념품과 푸짐한 경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알고 있는 노래 가사를 통일의 마음을 담은 가사로 바꿔 노래를 부릅니다.

- 초·중·고등학생 총 20팀
- 팀당 4명 이상, 학교당 2팀 이내
- 선착순 모집
- 사전 신청한 팀만 참가 가능
- 반주 파일 : 참가팀별로 MR을 MP3 파일로 사전 제출
- ※ 참가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 증정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 남자 고등학생(현재 농구협회에 선수등록이 안 된 학생)
- 총 40팀 선착순 마감 / 5인 1팀(학교당 2팀 이내)
- 우승 : 우승패+문화상품권 15만원+ 농구공
- 준우승 : 준우승패+문화상품권 10만원+ 농구공
- 3위(2팀) : 문화상품권 5만원+ 농구공
- 8강4팀 : 농구공
- ※ 참가자 전원 기념티셔츠 증정
- 경기규칙
- * 대진표는 대회본부에서 일괄 작성
- 진행 방식 예선-조별 리그 결산-토너먼트
- 경기 시간 전, 후반 구분 없이 10분
- ※ 자세한 경기 규칙은 www.blue21.or.kr에 탑재

참가 신청/문의

참가 신청서 제출 기한 : 2013년 5월 10일(금)까지

제출 방법 : E-메일 또는 Fax

제출처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905-0218 / Fax 227-0650 / jb-blue21@hanmail.net

* 신청서 양식은 www.blue21.or.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

2013

제13회 전북청소년 통일한마당

2013. 6. 1(토)

대회종목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초·중·고등학생 총 20팀(학교당 2팀 이내)
09:30~12:30 / 전주대학교 J아트홀

길거리(3:3)농구대회 남자 고등학생 총 40팀(팀당 5인)
09:00~17:00 / 전주비전대학교 야외농구장

참가대상 전라북도 초·중·고등학생

시 상

노·가·바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대총장상, 전주교대총장상, 전주시장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상, 전북겨레하나상장대표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장상

길거리 농구 우승 / 준우승 / 3위 2팀 / 8강 4팀

문의처 : www.blue21.or.kr / ☎ 905-0218

주최: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전주대학교

전북겨레하나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